

비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소개

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 생산이 시대적인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관련 지식 및 콘텐츠, 전문 인력,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기초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7년 10월 건립 발의 후, 임현진 교수를 초대 소장으로 2009년 2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부터 기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체계를 극복하고,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자립화·토착화·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발전을 거듭해, 지난 2013년 5월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대규모 단독 연구공간을 마련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강영구 교수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걸음 더 진전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현재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해 연구 기반을 마련 중이다.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특별 강연, 워크숍, 국내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학문 후속 세대를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 '아시아 연구의 허브' 라는 비전 위에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 간 긴밀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3개 지역연구(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센터를 설립·운영 중이고, 향후 서아시아·남아시아 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8개 주제연구 프로그램(대중문화, 동아시아 해역 초국경 교류 협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미·중관계, 시민사회, 아시아센서스, 위험관리, 환경협력) 또한 진행 중이다.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1동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nuac>
E-mail : snuac@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AC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인사말



아시아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대가 온다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저절로 잘살게 되는 것도, 아시아가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가, 아시아 공동체가 잘 되면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세기 유럽과 미국이 이룬 근대과학과 인문·사회 과학 등 근대 지식의 축적은 인류 문명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주의 지배와 전쟁, 차별과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아시아의 세기는 사랑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근대 이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지식 생산과 공유,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에서 아시아와 관련해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아시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주어진 책무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2월 출범 이래, 지역과 주제를 결합함으로써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연구 기반 구축과 우수한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지식 생산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 중 하나로 우수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미 땅속에 흐르고 있는 아시아 시대라는 지하수에서 수맥을 찾아 새로운 아시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강명규



지역과주제를결합한아시아연구기반구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목표로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개의 지역연구 센터와 8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을 가동, 상호 긴밀한 결합을 통해 발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연구센터

동북아시아 센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한반도의 중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연구, 동북아시아 협력과 공동체론 연구,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연구 등 정치군사적·경제적·사회문화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센터

국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전문적 지식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가정 센터의 구축을 지향한다. 동남아 해양부 이슬람 문화권과의 경제협력 및 동남아 대륙부 메콩 유역권과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연구, 교육, 국제 교류활동에 힘쓰고 있다. 집중적인 현지조사, 기업 대상의 지역 설명회, 이슈 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발간 사업도 운영 중이다.

중양아시아 센터

구 소련권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네트워크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지 조사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기반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연구를 수행, 연구 성과물로 발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 연구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

대중문화 연구 프로그램은 ‘문화가 삶의 총체’라는 인식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과 욕망, 가치, 세계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일본·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상 세계와 그것이 투영된 대중문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초기 3년간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꿈과 고뇌’라는 주제를 설정, 현재 빅데이터·설문조사·질적분석 방법으로 연구 중이다.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 협력 프로그램

국가와 영토의 논리보다 이동과 흐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새롭게 구축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동아시아의 해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연결된 다양한 구성단위(개인·집단·도시 등) 간 흐름과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중관계 연구 프로그램

‘21세기의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복합적인 관계 및 전 지구적·지역적 함의에 대해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미·중 관계 월례 세미나〉, 〈미·중 관계 학술워크숍〉, 〈미·중 관계 서지 데이터베이스〉, 〈미·중 상호인식 프로젝트〉, 〈새러전이: 19세기와 21세기의 비교〉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미중관계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이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발전 모델을 선진국의 발전 궤적과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인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와 연관된 교육 및 국제 교류활동도 수행한다. 대표 사업으로 해외 합동초합 전문가 초청을 비롯해, 국제 공동 워크숍, 특별강연 및 콜로키움,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전문가들과의 국제 교류 및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관련 도서도 출판하고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다양한 운동 부문과 지역, 전략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 협력 및 대안 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노력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데, 정기적으로는 교육 및 정책 제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아시아센터스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메타-데이터 축적 및 관리 능력이 핵심인 기초 자료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대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위험관리 프로그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권의 약진과 맞물린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계 경제 관련 경제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관련 교육 및 국제 교류활동을 수행한다.

환경협력 프로그램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간간이 되는 주요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동아시아에서 관찰되는 토지 황폐화의 경제성 평가, 아시아적 환경관 및 토지 이용관의 정립 및 적용, 지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 마련돼 있다.

외부 지원 연구 사업

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의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됨바, 동아시아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주제로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 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 경제 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동아시아 사회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흥지역연구사업

동남아시아라는 신흥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 및 실무요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 문화권으로 구분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지역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슈페이퍼와 정책보고서도 발간 중이다.

Global e-School Program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연구소는 2011년 이후 3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6개국 9개 대학에 28개의 국제 강의를 개설했고,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공동 강의와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강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성화전문화된아시아연구소 사업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내용을 발굴해 책으로 발간하는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 사업,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연구 주제를 지원하는 기획과제 사업,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연구자서를 번역 출간하는 ‘아시아 현대사 번역총서’ 사업이 있다.

학술행사

‘서울대 아시아 포럼’과 ‘열린 강연’을 비롯해 특별강연, 워크숍, 콜로키움,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기획

아시아 연구 대중화를 위한 특별 기획보도를 비롯해, ‘아시아 바로알기 프로그램(Asian Cultural Awareness Program)’을 정기적으로 기획, 아시아의 진면목과 아시아 연구의 중요성을 일반에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

아시아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SNUAC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과 ‘SNUAC 박사학위 논문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 해외 현지조사 및 연수지원 프로그램과 해외 우수 연구자 초빙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이 밖에도 후속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자원을 위한 대학원생 포럼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식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문·영문 총서 시리즈(아시아연구소 총서,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와 정기 학술지(아시아 리뷰)를 발간하고 있다.

